

# 보 도 자 료

(주소) 1648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56 (팩스) 031-278-7035

배 포 일	2024.12.16.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 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즉시				
국내 최초! 경기도박물관에서 만나는 특별한 융합 : <제1회 박물관영화제> 개최 (영문: Museum CineFest, MCF)		6	2	www.ggcf.kr	정책실 서동빈 (031-231-7256)



## 국내 최초! 경기도박물관에서 만나는 특별한 융합 : <제1회 박물관영화제> 개최

- ▶ 역사와 영화의 만남, 새로운 문화 경험의 시작
- ▶ 2025년 1월 10일, 국내 최초 '박물관영화제' 개막
- ▶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역사와 영화의 융합
- ▶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 및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특별 상영
- ▶ GV 토크 콘서트와 심포지엄으로 탐구하는 '전시 X 영화'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인택)은 <제1회 박물관영화제(Museum CineFest, MCF)>를 오는 2025년 1월 10일(금)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전시 X 영화' 융합 장르로, 영화와 전시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예술 영역이 박물관 유물을 매개로 하나로 결합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선보인다.

박물관영화제는 관객들에게 기존의 영화 관람 방식을 넘어, 유물과 영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적·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박물관의 전시 유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통해 유물과 스토리에 담긴 다층적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전반적인 운영을 이끌며,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조한희 한국박물관협회장, 심재인 경기도박물관협회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그 외 영화계와 박물관계 전문가 10여 명의 추진위원과 함께 준비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은 박물관영화제의 전문성과 예술적 깊이를 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영화제는 영화제의 형식적 요소를 넘어, 박물관을 새로운 문화적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경기문화재단의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전시와 영화라는 두 장르가 만나는 특별한 융합을 경험하며, 관람객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1회 박물관영화제>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에서 1월 10일부터 매주 토,일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제와 관련된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추후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 **박물관인이 주도하는 융합의 장 : 전시 X 영화**

일반적인 영화제는 영화인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박물관영화제는 박물관인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행사이다.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이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박물관 및 영화계 전문가 12인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박물관은 역사 유물을 전시하는 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경기도박물관은 이러한 틀을 깨고,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대중적인 영화 장르를 박물관으로 초대하여 역동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아트홀과 전시장(상설전, 특별전 1·2, 기증전), 야외마당 전체가 영화 상영 공간으로 활용된다.

## **학예사, 감독, 배우, 인문학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영화'**

영화 속 유물과 박물관의 실제 유물이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GV(Guest Visit) 토크 콘서트에서는 각 영화 상영 후 학예사, 감독, 배우, 역사 전문가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기존의 영화와 유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통해 '박물관영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특별한 경험 : 영화 속 유물과 실제 유물의 만남

영화에서는 유물이 단순한 소품으로 등장하지만, 박물관에서는 실제 유물이 중심이 되어 영화와 만난다. 예를 들어, '섹션 1 - 조선의 시간 속으로: 영화와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는 <역린>과 장한종의 '책가도', <상의원>과 심연의 '중치막' 등이 만나 기존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영화 속 유물과 관련된 전시를 통해 관객들은 영화와 역사를 동시에 체험하며 '박물관영화'라는 장르를 경험할 수 있다.

## 개막작 : 영화 <관상>과 박물관 유물 '초상'의 특별한 대화

박물관영화제 개막작은 영화 <관상>이다. <관상>은 계유정난(1453년)을 배경으로 관상쟁이 내경(송강호 분)이 권력 다툼 속에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인간의 욕망과 운명, 그리고 선택을 통한 운명 극복 문제를 '관상'이라는 렌즈를 통해 탐구하며,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을 되짚어본다. 박물관영화제에서는 <관상>이 경기도박물관 소장 '우암 송시열 초상'과 함께 전시되어 시공을 초월하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을 비교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학예사, 명리학자, 배우, 감독의 토크쇼를 통해 관상과 초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운명의 수용과 극복에 대한 다각도의 시각을 제시한다.

## 다채로운 주제 섹션 프로그램

섹션 1 - 조선의 시간 속으로: 영화와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

섹션 2 - 빛을 향한 기억: 일제 강점기와 광복 80주년의 성찰

섹션 3 - 특별 상영: 황진이, 그녀를 살아내다

## 심포지엄: '전시 X 영화' 언어의 새로운 창출을 위하여

부대 행사로 '다양성을 담다: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도약 - 전시 X 영화의 새로운 언어 창출 실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박물관계와 영화계 전문가들이 모여 박물관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영화와 유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GV 토크 콘서트 외에도 '부채에 쓰는 새해 덕담 캘리그래피', '스마트 앱으로 보는 신년 관상 - AI 관상 앱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 [별첨1] 개막식 일정

일시: 2025년 1월 10일(금) 오후 17시 ※사전행사 : 14시 30분~

장소: 경기도박물관 1F 뮤지엄아트홀

행사내용:

시간	내용	장소
14:30~17:00	개막작 영화 <관상> 상영	뮤지엄아트홀
17:00~17:30	<관상> X '우암 송시열 초상' GV 토크 콘서트	
17:30~18:00	개막식(내외빈 소개 및 축사)	
18:00~20:00	관계자 만찬	제2기획실

## [별첨2] 제1회 박물관영화제 상영시간표

날짜	시간	상영작
1.11(토)	10:00	<왕의 남자>
	13:00	<역린> + GV 토크 콘서트
1.12(일)	10:00	<상의원>
	13:00	<이재수의 난> + GV 토크 콘서트
1.18(토)	10:00	<암살>
	13:00	<상의원> + GV 토크 콘서트
1.19.(일)	10:00	<자산어보>
	13:00	<말모이>
	16:00	<관상>
1.25(토)	10:00	<황진이>(2007)
	13:00	<황진이>(1986) + GV 토크 콘서트
1.26(일)	10:00	<남한산성>
	13:00	<동주>
	16:00	심포지엄

## [별첨3] GV(Guest Visit) 토크 콘서트 :

‘영화적 상상력과 유물의 리얼리티 사이에서’  
학예사 논평 부분

### 정윤희학예사 : <관상>과 초상 사이

경기도박물관이 영화 ‘관상’을 초상화 유물로 새롭게 읽어낸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송시열 초상> 등을 통해 영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영화 속 관상학적 해석에 역사적 맥락을 더하고자 기획되었다. 영화 ‘관상’은 조선시대 관상학을 배경으로 인간의 운명과 권력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 속 관상가는 얼굴을 통해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읽어내며 권력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러한 영화의 서사를 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시대 초상화로 확장해 관객들이 영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도박물관은 250여 점의 조선시대 초상화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사대부 문화와 유교적 가치를 담아낸 유산으로 평가받는다. 초상화는 단순히 외모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물의 삶과 정신을 담아내

는 매체다. <송시열 초상>은 대표적인 예로,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한 표현과 당시 성리학적 가치를 반영한 구도가 돋보인다. 영화 속 주인공이 권력자들의 얼굴을 관찰하며 읽어내는 의미는 초상화와 흥미롭게 연결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영화 속 장면과 초상화의 시각적 요소를 비교하며, 초상화가 당시 사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탐구한다. 특히, 영화에서 관상을 통한 권력의 상징성이 초상화 속 인물 묘사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영화의 이야기를 넘어 조선시대 초상화가 지닌 깊은 역사적 맥락과 상징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박물관 유물을 통해 영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조선시대 초상화를 통해 영화 속 인물의 이야기에 생생한 역사적 배경을 더하고, 관객들이 영화와 유물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다.

#### **박본수학예사 : 영화 <역린>과 장한중의 <책가도>**

역린(逆鱗)은 상상의 동물인 용의 턱 아래 거꾸로 난 비늘을 뜻하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怒)하여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영화 <역린>은 2014년 개봉작이다. 뒤주에 갇혀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선포한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재위 1776-1800)는 집권하자마자 암살 위협에 시달린다. 하루 동안 벌어지는 정조의 암살 위협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 속에서 정조가 평소 거처하는 편전 어좌의 배경에 경기도박물관 소장 <책가도>가 둘러쳐 있다. '책거리'라고도 불리는 이 병풍화는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 꽃과 기물 등이 그려진 그림으로 18세기 후반 정조 재위 시에 궁중회화로 유행하며 19세기 이후 민화로 확산되었다.

장한중(1768년-1815년 이후)은 정조대에 자비대령화원을 지냈으며 어해도(魚蟹圖)로 이름난 화원이다. 조선의 궁중장식화에는 화원들이 서명이나 낙관을 남기지 않은 것이 관례인데, 장한중이 그린 <책가도>에는 '張漢宗印'이라 새긴 도장이 숨겨져 있어 작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 책가도 그림의 사례가 되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정권의 핵심 기구로 삼고 실학파와 북학파 등 인재를 등용하여 문화정치를 완성해갔으며, 문물제도의 정비사업과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수입과 각종 서적 편찬, 친위군인 장용영 설치, 신도시 수원 화성 건설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영화 <역린>과 장한중의 <책가도>를 통해 정조가 추구한 문화를 통한 왕권강화책의 일단면을 볼 수 있다.

#### **정미숙학예사 : 영화 <상의원>과 패션**

<상의원尙衣院>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왕과 왕비 등 특수 계층의 '의복'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영화의 내용은 권위적이면서 보수적인 태도로 인하여 유행의 수용에 소극적인 왕실 소속 침선장 조돌석(배우 한석규)과 그와 반대로 대중들 속에서 창의적인 유행의 흐름을 선도해 옷 하나로 왕실부터 기생들까지 광적인 관심을 이끈 이공진(배우 고수)과의 갈등 구도가 영화 속 흥미의 초점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새로운 복식 유행의 핵심 포인트는 '좁은 소매통에 짧은 저고리', '풍성한 치마'이다. 이는 일명 '상박하후(上薄下厚)' 스타일로, 상의는 좁고 치마는 풍성한 실루엣을 말한다. 이러한 복식은 18~19세의 크게 유행하는데 하층민으로부터 상류층에 전달되는 역피라미드형 유행 전파를 이끌게 된다. 18~19세기는 예와 법도로 인하여 정제된 정치적 일면을, 옷을 통해 혁신의 갈망을 표출하고자 한 시대라 할 수 있다. 영화 <상의원> 속 복식과 박물관 소장 복식을 비교하며 당시 민중이 갈망한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보고자 한다.



〈제1회 박물관영화제〉 포스터



## 제1회 박물관이 영화를 만났을 때 박물관영화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물관이 영화를 만났을 때  
정적인 공간인 박물관에 동적인 영화가 함께하여  
역동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경기도박물관에서  
**제1회 박물관영화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막식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물관인(人)이 주인이 되어  
영화 속 유물을 박물관에서 실제로 만나는,  
영화와 유물을 동시에 체험하는 '박물관영화제'는  
2025년 1월 10일 (금) 개막작 '관상'을 시작으로 1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 일시 2025년 1월 10일 (금) 오후 5시

■ 장소 경기도박물관 1F 뮤지엄아트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수인분당선 용인 상갈역 기흥역 도보 500미터,  
주차공간 넓고, 개막식 참석자 주차무료

■ 문의 영화제 사무국 조윤정 사무국장

■ 전화 031-288-5464 ■ 모바일 010-5219-3820

### 공동추진위원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조한희 한국박물관협회장  
심재인 경기도박물관협회장 유인택 경기도문화재단 대표  
이동국 경기도박물관장(박물관영화제 집행위원장)

### 개막식 일정

시간	내용	장소
14:30-17:00	개막작 영화 <관상> 상영	
17:00-17:30	토크콘서트 <관상> X '무암 송시열 초상'	뮤지엄아트홀
17:30-18:00	공식행사 (L&D인 쇼케이스 및 축사)	
18:00-20:00	연찬 (비트워킹)	제2기획실

경기도박물관  
GYEONGGI MUSEUM

〈제1회 박물관영화제〉 웹초청장